

“경영 최우선 과제 ‘에너지 안보’” 춘향의 멋, 풍ROCK을 울려라!

임실 출신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신입 사장, 취임식 갖고 공식 업무 돌입

임실 출신인 손주석(孫周錫, 1960년생) 한국석유공사 신입 사장이 지난 3월 5일, 울산 혁신도시에 위치한 석유공사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손주석 사장은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전주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를 졸업했으며, 공공기관과 에너지·환경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온 전문 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에너지와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또한,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행정지원실장을 맡아 정부경험을 쌓았으며, 민주당 부천시 소사구 지역위원장을 지내는 등 정무적 역량도 함께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한화건설 토목환경본부 고문과 신성대학교 보건환경과 초빙교수로 활동하며 산업 현장 경험과 학문적 전문성을 동시에 쌓아왔다.

손주석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중동 정세 등 국제 에너지 환경이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에너지 안보라는 공사의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경영의 최우



임실 출신인 손주석(孫周錫, 1960년생) 한국석유공사 신입 사장이 지난 3월 5일, 울산 혁신도시에 위치한 석유공사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 건전성 회복과 석유개발사업의 질적 고도화, 국가안보 자산인 석유비축사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공사의 내실있는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 중심의 경영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안전경영 강화, 인공지능(AI)기반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취임 하루만인 지난 9일에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봉쇄로 석유수급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하루 석유

사용량인 원유 200만배럴을 추가 확보하는 등 석유수급 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축유 방출대비 태세를 강화하며 에너지 위기대응에 발빠르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임실 출신 인사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공기업 수장에 취임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큰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임실이 낳은 인재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자부심과 함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임실=진종영 기자

남원 춘향제 밴드 경연대회 개최... 4월 3일까지 신청 접수

남원시가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되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 축제인 제96회 춘향제를 맞아, 전국의 실력과 뮤지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밴드 경연대회 ‘풍ROCK을 울려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춘향제는 “춘향의 멋, 세계를 매혹시키다”라는 주제 아래,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넘어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문화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밴드 경연은 락(메탈)과 펑크의 강렬한 에너지부터 블루스, 재즈의 부드러운 선율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한층 넓어진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2곳 선정

남원시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6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서 최종 2곳이 선정되어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서류와 현장 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전북 도내 총 16개 접수팀 중 최종 5개 단체가 선정, 남원시는 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2개 단체가 이름을 올리며 그동안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해 꾸준히 공들여 온 노력이 실질적인 결실을 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인 ‘즐거움기획자들’과 ‘22헤르츠고래들’은 각각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이들은 또 주민들이 직접 안전 점검을 요청한 ‘주민 신청’ 시설 12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 군민 체감형 안전 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인 ‘즐거움기획자들’과 ‘22헤르츠고래들’은 각각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이들은 또 주민들이 직접 안전 점검을 요청한 ‘주민 신청’ 시설 12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 군민 체감형 안전 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원시와 ‘22헤르츠고래들’은 남원의 청년들이 직접 지역을 탐색하고 기록하며 이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참여형 로컬 프로젝트를 추진,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와 로컬 콘텐츠 개발을 통해 경험 기대로 지역특화 문화·예술 및 로컬 콘텐츠를 개발해 외부 청년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이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양충모 남원시장 예비후보, AI 관련 민간투자 유치 발표

데이터 센터·AI 기반 영상 스튜디오 등 조성

것이려고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양충모 남원시장 예비후보(사진)는 남원시에 데이터센터 건립 등 AI 관련 민간투자 유치를 발표했다.



양 예비후보의 발표에 따르면 개발 지역은 사매산업단지 일원으로, 5천평 규모의 10MW급 데이터센터(약 1,500억원), 6만평 규모 AI기반 영상 스튜디오(약 4,000억원)이며, 연관기업에는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서비스 기업 등이나 상기 사업의 투자 규모 및 부지 필요 면적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을 수 있다. 데이터센터는 정부 정책에 기반해 관공과 미래산업과 연계해 남원에 자

연(지리산)·역사(광한루 등)·미래(AI산업)를 연결하는 산업벨트를 구축, 양질의 청년 일자리와 전문인력 양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AI 기반 영상 스튜디오 조성 사업에서는 영화제작 전반의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기업과 중국, 유럽 기업 등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을 유도할 수 있고, K-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AI영상 데이터센터, 아카데미, 숙박시설 도입은 물론 국내 영화, 영상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AI영상 데이터 센터와 연구센터 필요성에 따라 생성형 AI 영상 등장과 영화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남원이 AI영상 제작의 새로운 디지털 허브 발돋움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순창군, ‘집중안전점검’ 사전 설명회 갖고 본격 추진

순창군이 ‘2026년 집중안전점검’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순창군은 1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 사전 설명회를 열고 점검 대상 시설과 점검 절차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점검 대상 시설물 기준을 안내하고 민간 전문가와의 합동 점검 체계,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점검 결과 등록 방식 등 효율적인 점검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1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공장과 공동주택, 숙박 시설, 요양시설, 어린이집, 전통시장 등 총 83개 시설로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 우려가 큰 취약 시설이 포함됐다. 또 주민들이 직접 안전 점검을 요청한 ‘주민 신청’ 시설 12곳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 군민 체감형 안전 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순창군은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담당 공무원 30명과 함께 소방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전문가,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 4명을 포함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첨단 장비를 활



용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까지 정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과정에는 ‘집중안전점검 시스템’을 활용해 현장 점검 결과를 모바일 앱으로 즉시 등록한다. 점검표와 현장 사진을 실시간으로 입력해 점검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적 사항이 발생한 시설물은 보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분기별 사후 관리도 실시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음식점 위생등급 컨설팅 참여 업소 모집

순창군이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컨설팅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

순창군은 관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영업자 가운데 총 5개 업소다.

다만 기존에 위생등급 컨설팅을 지원받은 업소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순창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음식점 위생등급 컨설팅’을 검색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된 업소에는 위생 수준 평가 항목에 대한 사전 진단과 함께 전문가의 1대1 맞춤형 방문 컨설팅이 제공된다.

컨설팅을 받은 업소는 올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 위생등급제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위생등급 업소로 지정될 경우 지정증과 현판이 교부되며 지정 기간 동안 위생점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상수도 요금 20% 감면과 종량제봉투 등 위생용품 지원 혜택도 제공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임대농기계 운반대행 실시

임실군은 농기계 운반 장비가 없는 농업인의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해 임대 농기계 운반과 회수를 해결할 수 있는 ‘임대농기계 운반대행’을 지난 9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운반대행 기종은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유 농기계 중 관리기 등 7종으로 1톤 이상 트럭에 운반 가능한 엔진부착형 소형 자주식 농기계에 해당한다.

운반대행료는 관내 전지역 운반·회수 왕복 자부담 5만원이며, 신청 절차는 예약제로 최소 하루 전 권역별 임대사업소(중부, 남부, 서부, 북부)에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해야하며 당일 신청은 불가하다.

/임실=진종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